

## 첨단 기술시대의 신학적 과제

### 인간과 기술의 상호협력적 관계에 대한 신학적 상상력과 기술신학 정립\*

김은혜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 I. 들어가는 말
- II. 기술개념의 변화와 기술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중요성
- III.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시몽동의 철학적 도전과 신학적 응답
- IV. 기술신학의 토대로서 만물 신학과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6.08>

\* 이 논문은 2023년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 ABSTRACT •

---

**Theological Task in the Hi-Tech Age: Theological Imagination and Establishment of Techno-Theology o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Technology**

Prof. Kim, Un-Hey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is a theological response to the changed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echnology by reflecting on the concept of human and technology as Homo Fabers in the high-tech era. Beyond the human-centered view of technology I will examine the ont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echnology and criticize the understanding of modern technology from a generative perspective on technolog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task the ontological nature of technolog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humans are confirmed through dialogue with a philosopher of technology, Gilbert Simondon,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tive creation, and the mutual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echnology in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Through this process of theological reflection, it is hoped that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redefine the mission of the church given by God even in the technological era and discover a new way for the church, a religious community, to regain its power.

**Key words:** Concept of Technology,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Theology, Gilbert Simondon, Theology of All Things

---

## I. 들어가는 말

팬데믹 3년을 겪으며 기술과학의 변화는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넘어 오랜 기간 익숙했던 교회활동과 신앙양태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만들었다.<sup>1)</sup> 사실 한국교회는 일찌감치 대형 스크린과 영상광고 등으로 예배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와 비접촉 교회 활동 등으로 전통적 접촉 중심의 목회만을 고수하는 것이 어렵고 디지털 문화의 확산에 맞추어 모바일로 연결된 가상적인 인간관계가 대세인 현실에서 온라인 기반 활동이 중요한 신앙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향후 디지털 혁명에 가까운 기술 발전으로<sup>2)</sup> 기술이 점점 더 생활에 밀착될 것이고 더 중대한 미래의 목회적 파트너가 될 것이다.

2023년 이제는 엔데믹을 기대하며 상당 부분 예전의 교회 활동을 재개하고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여전히 교회는 온라인 관계를 목회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에서 현대기술은 목회 활동에 더 깊이 개입하게 될 것이며 더 필수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더욱이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소리 없이 교회를 등지는 청년들, 가나안 성도 그리고 부유하는 그리스도인<sup>3)</sup>의 증가 현상은 이제 목회자들이 전통적 교회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저 기다리기보다는 흩어진 양들을 위한 적극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탈성장의 시대에 목회자는 기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목회역량과 그 현상을 신학적으로 진

1)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성찬의 형식과 세례 방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실천되고 있고 성도의 교제와 새로운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 견해들이 무성하다.

2) 가슴의 터치스크린을 클릭해서 언어를 선택한다. 5개 국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폴란드어)가 가능하다.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최승현, “5개 국어로 축복해주는 ‘로봇 목사’ 등장-기계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의 목적”, 2017년 5월 31일.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52>

3) 플로팅 크리스천(Floating Christian)이란 팬데믹 이후 온라인 네트워크를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천을 의미한다.

단하고 기존의 접촉중심의 목회와 접속목회를 결합시켜 나아가는 방식을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팬데믹이 더 빈번하게 올 것이라는 예측 속에 지난 3년의 목회현장의 경험이 가장 소중한 목회적 신학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한편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메타버스, 인스타그램, 모바일, ChatGPT 등으로 속도를 내는 기술은 인간의 필요와 의도에 따르는 도구적 기계의 수준을 넘어서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인간의 사유와 활동 전체에 본질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동시에 인간의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간소외와 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이다. 더욱이 기술이 핵무기개발, 우주개발, 바이오테크놀로지, 정보통신기술등 인간의 통제범위를 넘어가고 있는 현실과 자연환경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비판도 기술신학의 정립을 통해 바르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첨단기술 시대에 인간중심주의나 기술만능주의를 넘어서 호모 파베르(Homo Faber)로서의 인간과 그 인간이 사용하는 기술개념을 재고하고 변화된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응답이다. 인간의 역사는 자연환경만이 아니라 기술환경과의 복잡한 상호영향 안에서 형성되어왔다. 따라서 인간중심적 기술관을 넘어 인간과 기술 사이의 존재론적 관계를 신학적으로 숙고하고 기술에 대한 발생적 관점으로 근대 기술 이해를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의 존재론적 본성과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발생적 생성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기술 철학자 질베르 시몽돈(Gilbert Simondon)과 만물 신학<sup>4)</sup>과의 대화를 통해서

4) 만물신학은(theology of all things) 필자의 개념으로 콜로새서 1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만물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창조론과 구원론의 적극적 결합을 통해 인간중심주의적 개인구원론의 반생태적 결과들을 반성하고 피조세계와 만물이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서사에 중요한 매개자임을 긍정하고자 하는 신학이다.

기계들과 공존하는 인간의 삶을 긍정하며, 기술적 존재자들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기초로 현대 기술사회에서 인간과 기술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신학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만물 신학의 입장이 팬데믹 이후 속력을 내는 기술 발전을 그저 놀라움과 위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마주하는 목회 현장과 신앙생활의 급진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바람직한 신학의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이 글의 핵심 주제인 기술과 기술 개체<sup>5)</sup>에 대한 신학적 숙고에 나타나는 새로운 개념들은 단순히 언어적 의미형성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화와 물질환경을 변화시키고 인간뿐 아니라 만물을 인간과의 관계성 안에서 새롭게 위치 지을 수 있는 기술신학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성찰의 과정은 기술시대에도 교회의 사명을 재정립하고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다시 동력을 회복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II. 기술개념의 변화와 기술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중요성

기술(technology)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최근의 눈부신 기술의 발전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사의 기술은 이미 그 자체가 인간의 사는 환경이요 생태계가 되었다. 즉 현대사회에서 기술은 미디어와의 상호작용 방식, 인간의 인식체계와 세계관,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 방식, 사회문화적 차원 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술 문화의 변화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영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간이 디지털 기술을 만들지만, 이 기술은

5) 기술 개체는 기술을 매개하여 대상화된 개별 기술 대상(object)을 의미한다. 본 글에서는 기술 대상과 기술 개체를 호환하며 맥락에 따라 사용할 것이다.

문화에 영향을 주고 문화가 다시 디지털 기술에 영향을 주는 이 복잡한 상호작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디지털 세계(Digital World)의 현상은 인간의 편리함을 넘어 기존의 개념적 틀을 균열시키고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과 가치의 문제를 제기한다. 결국, 사회 안에 있는 교회는 신앙인이 살아가는 생활세계에서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기술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응답해 나아갈지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즉 첨단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전이 단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만의 과제가 아니라, 신앙적 삶의 방식과 건강한 공동체를 고뇌하는 교회의 중대한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이 수많은 변화의 중심축이 되어가는 시대를 잘 이해하고 보다 책임적으로 응답해 나아가기 위해서 기술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기술에 대한 고전적 이해는 간단하게 “목적을 위한 수단”이자 “인간적 활동”으로 규정한다.<sup>6)</sup> 즉 기술은 인간의 산물이고 인간의 의도에 따른 것이며 인간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전적으로 인간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 자신의 쓸모에 맞게 사용하는 호모 파베르의 인간을 의미하며<sup>7)</sup> 오랫동안 인간의 신체적 활동을 돕는 도구나 연장의 형태로 수동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렇게 일종의 도구로 파악한 근대적 기술 이해는 기술을 문화보다는 문명과 함께 이해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난다. 즉 근대적 사유는 정신과 물질을 이원적 대립으로 인식하여 인간과 기술 그리고 사회와 자연을 서로 배타적으로 위치 지우고 결과적으로 기술을 문화에서 분리하여 유용성의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술과 문화의 분리는 도구적인 기술

6) 이기상, “현대 기술의 본질: 도발과 뒤통”, Martin Heidegger, *Vorträge und Aufsätze*, 이기상 외 역, 『강연과 논문』 (서울: 이학사, 2008), 394.

7) 김진택, 『테크네 상상력』 (서울: 바른북스, 2021), 252.

과 문화를 창조하는 정신적인 인간의 관계가 계층적이며 상호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도 기술은 한 개인의 발명을 통한 기능과 기교로 과학 이론이 필요치 않은 반복 훈련을 통해 전수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과거에는 학문으로서의 과학과 수작업으로서의 기술이 명백히 분리되었으나, 근대로 올수록 이 둘은 긴밀한 동맹 관계를 이루고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산업사회 이후로 나타난 거대한 자동화 기계들의 출현과 기계들의 거대한 집합체인 공장의 출현은 기술적 대상들의 극적인 변화를 수반하며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서구에서는 산업혁명 초기에 근대 과학이 기술에 적용되다가 나중에 기술과학<sup>8)</sup>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이는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다. 또한 현대의 핵 개발과 현재 진행되는 기업의 우주개발은 국가적 방향일 뿐 아니라 거대한 기술 관계자들의 집단적 연구를 통해 확장되고 있다. 즉 과학기술과 기술과학의 결합이다. 이러한 총체적 현실은 도구적 합리적 목적적 관점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수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근현대 기독교 역시 기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근대 기독교는 기술을 인간성과 대립적인, 적어도 인간성과 구분되는 것으로 정의하기에 현대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판적인 경향을 띤다.

8) 현대를 흔히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들이 가져다준 물질과 도구로 인간의 삶이 풍요롭게 되었다. 과학과 기술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면 고대 시대는 과학의 우위 그리고 중세 시대는 기술의 우위 이후 르네상스 과학혁명의 시대에는 과학과 기술의 협업이 시작되고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과 과학의 더욱 밀접하게 결합함으로써 근대 공학을 탄생시킨다. 이후 20세기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기술과 과학이 결합된 영역으로 기술과학(Technoscience)은 과학의 중요성에 강조를 두는 과학기술과 다르게 기술의 독자적 영역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이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신학적 담론도 기본적으로 비판적 담론이 주류이다. 그 배경에는 인간이 만든 기술이 절정이던 냉전 시대에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과 그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소외에 바탕을 둔 기술 비판이 자리한다.<sup>9)</sup> 그 정점에는 하이데거의 기술 철학적<sup>10)</sup> 사유가 중요한 전환을 주고 있다. 기술에 대한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나 아감벤(Giorgio Agamben)과 같은 현대적 이해는 기술의 독립적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기술의 반인간화 경향에 대한 방어적이고 비판적 태도가 기본이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근대의 기술이해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술이 자연을 지배하는 도구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인간 행동의 하나라고 여기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술에 관한 도구적, 인간학적 관점이 주체로서의 인간과 도구로서의 기술이란 이분법적 관계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유는 기술의 본질 영역을 밝혀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이데거의 기술 이해는 이미 ‘호모 파베르’로서의 인간 주체에 의해 사용되고 조종된다는 기술에 대한 근대적 사유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는 현대 기술이 자연과 인간을 한갓 부품으로 대상화한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현대기술의 등장은 인간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역사의 운명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인간이 기술의 주체인 양 자신의 비인간화와 존재 망각에 오히려 동조하고 있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 주장하였다.<sup>11)</sup>

하이데거는 정신의 주체인 인간이 사물을 객체화하여 지배하게 되었다고 자만하지만 사실 인류는 객체와의 과정에 예속되었고<sup>12)</sup> 인류가 기술을 도구로 생각하는 한 인류는 그 기술의 본질을 간과하게 될 것이라고

9) 그 대표적인 입장이 하이데거의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10) ‘기술 철학’이란 용어는 1877년 에른스트 캅(Ernst Kapp, 1808-1896)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이기상, “현대 기술의 본질: 도발과 다툼”, 『강연과 논문』, 434.

12) 박찬국, “하이데거와 니힐리즘의 극복”, 『강연과 논문』, 486.

지적하였다.<sup>13)</sup> 그는 오히려 기술을 대상화하는 인간중심의 생각을 비판하며 형상과 질료 그리고 정신과 물질의 오랜 분리적 사유의 토대와 근대 인간 이해를 근거로 뿌리내려온 도구로서의 기술 이해를 비판한다. 그는 인간 중심의 편리함과 생산성에 도취 되지 않고 기술의 본질에 대해 존재론적 물음을 던지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근대적 사유의 한계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핵폭탄의 위력을 경험했던 기술사회의 모순과 위협을 간파하였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기술 이해는 근대 인간중심의 도구적 기술 이해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기술의 본질이 내포하는 모순을 자기 시대의 운명으로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다. 결론적으로 하이데거는 근대인의 기술에 대한 이러한 도구적, 인간학적 정의를 거부하였다.

하이데거는 기술에서 결정적인 것은 도구 혹은 수단을 쓴 제조 행위나 조작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은폐(entbergen)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즉 기술은 탈은폐의 행위로 그것은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놓음’으로 사물의 본질을 밝히는 진리의 영역에 관계한다는 것으로 그 자체의 모습이 고유하게 드러나는 비은폐성(Unverborgenheit) 가운데로 데려오는 행위에 있다고 말한다.<sup>14)</sup> 이것은 기술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 하이데거의 시도로서 인간이 기술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극복 방안으로 존재망각에 대한 부단한 반성과 본질에 대한 사유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본질적 사유로 도구적 기술 이해를 극복하고자 한 것은 현대 첨단기술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기술을 철학적 본질 관계로 환원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을 뛰어넘는 AI, 로봇 그리고 챗지피티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복잡한 내적인 구조와 인간과의 관계를 해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의

13) Martin Heidegger, *Vorträge und Aufsätze*, 『강연과 논문』, 44.

14) 안미현, “하이데거의 기술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STS와 ANT의 관점에서”, 『독일언어문학』 Vol.0 No.89[2020], 76.

기술 이해는 기술과 문화 그리고 인간과 기술의 이원론적인 분리를 정당화함으로써 발생시키는 환경파괴와 인간과 물질의 복잡한 얽힘의 관계를 간과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여전히 기술의존적 자본주의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를 반성하기 위해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하이데거의 시대가 여전히 근현대적(modern) 기술 문명을 문제 삼고 있다면, 20세기 후반의 기술 발전은 탈근대적(post-modern) 후기 산업사회적 양상을 보인다. 그동안의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이 더욱 급속하게, 더욱 복잡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후의 기술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기술 발전의 복잡성, 불확실성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인공지능, 로봇공학, 유전공학 등의 급속한 발달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술의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다.<sup>15)</sup> 즉 인간만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기술을 통한 인간의 신적인 영역으로의 도약을 믿든지 모두가 결국은 인간중심주의를 통한 기술에 대한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기술이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기술비판이나 기술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기술중심주의도 모두 기술에 대한 과도한 평가에 기인한다. 필자는 기술 시대의 신학적 과제는 기술과의 연관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면서도 탈인간화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기술은 단 한 순간도 인간 역사에서 분리된 적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현대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테크놀로지의 어원인 '테크네'(Tekhne)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고대의 기술은 문화와 분리되지 않았고 예술과 다르지 않았다. 고대로부터 문예부흥의 시기까지 사실 기술은 은폐되어있던 다양한 존재자들 간의 관계성을 만들어가

15) 위의 글, 83.

는 진정한 포이에시스(ποίησις)이었다.<sup>16)</sup>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 테크네는 매우 실천적인 성향의 지성으로 이해되었으며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을 엮는 인간의 지성적 행위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테크네의 실천은 관념적 실천이나 그 본질의 파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비인간 '타자와 사물'을 포함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이며 인간 몸의 감각을 통해 확장되어가는 환경이 된다.<sup>17)</sup> 이렇게 기술의 어원적 유래를 살펴보면 인류는 항상 '테크네'의 실천적 행위로 사물과 존재들의 관계망을 형성하여왔고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과 기술의 창조와 융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최근의 2세대 기술철학<sup>18)</sup>은 기술개념을 노동과 사용 도구의 관점으로 파악할 수 없는 기술개체들과의 관계를 위해 기술적 작용과 활동의 관점에서 인간과 기계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며 셀 수 없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기술문화 속에 살아가는 현대 인간의 삶을 이해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념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물어야 한다. 현대기술은 인간과 인간성을 위협하는 대상인가? 알파고의 등장은 인간과 기계의 대결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국교회는 이러한 기술변화와 상관없이 기술을 그저 선교와 예배를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은 문제가 없을까? 기술이 사회문화를 추동하는 중심축일 뿐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 기술 시대에서 교회의

16) 포이에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을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으로 분류할 때 사용한 용어. 넓게는 대상의 법칙을 알고 그것에 따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내는 기술 일반을 의미하나 좁게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참되다고 느낀 세계를 표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https://wordrow.kr/의미/포이에시스>

17) 김진택, 『테크네 상상력』, 20.

18) 1970년대 미국에서 기술철학회가 창립되면서 기술철학은 본격적인 철학의 분과로 독립했다. 또한 1980년에는 유럽대륙에서 과학기술연구STS, 기술사회학, 구성주의 혹은 신물질주의,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 등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과학기술을 둘러싼 담론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코로나를 겪으면 사실 목회 현장은 기술의 도움이 아녘다면 예배도 불가능하였고 교회의 존립도 매우 어려웠으며 상당 기간을 성도들은 고립과 분리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기술 발전과 다양한 플랫폼은 재난의 상황에도 예배를 가능하게 했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성도와 접촉하고 소통하도록 도우며 교회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왔다. 따라서 기술 발전이 가져온 급격한 기술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의 고정화된 신념에 매몰되지 않고 습관화된 교리적 사유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수행해야 한다.

즉, 기술 신학의 토대를 정립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기술에 대한 도구적 인식의 한계를 성찰하고 인간과 기술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 사유가 시급하게 요구된다.<sup>19)</sup> 이러한 기술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현재 기술 기반의 교회 활동과 향후 불어 닥칠 기술에 대한 사회문화적 혁신과 인간성에 대한 다양한 도전들에 대처해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기술이 논의될수록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더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날이 복잡해져 가는 현대 기술문화는 초연결사회의 기술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기술이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기술발전을 추동하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네트워크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일방향적 인식을 넘어 인간과

19) 시몽동 전문가인 김재희는 오늘날 기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술은 더 이상 인간의 통제 아래 야생의 자연을 다루는 단순 도구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간 신체의 안과 밖에서 인간과 접촉되어 있는 기술적 기계들은 인간 자신의 물리생물학적 조건들을 변형시키면서 인간 삶의 근본적인 존재 조건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재희,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 제106집(2014), 216.

기술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파악하는 신학적 상상력을 통해 주어지는 경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 자연뿐 아니라 물질과 기술대상을 포괄하는 인간중심의 경계를 필연적으로 넘어서는 것과 동일한 노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중적 전환에 대한 신학적 응답을 모색하기 위해서 위하여 인간과 기술의 상호관계를 더욱 근본적으로 모색한 철학 이론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III.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시몽동의 철학적 도전과 신학적 응답

기독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삶의 기반으로 기술변화를 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 사회의 규범과 미래의 삶의 방식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성경에는 바벨탑과 같은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기술처럼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과 방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환경과의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기술개체는 인간구원의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 매개자들이 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사유는 질베르 시몽동(Gilbert Simondon)<sup>20)</sup>의 개체 발생적 생성<sup>21)</sup>과 역동적 관계론이라는 독특한 관점

20) 질베르 시몽동(Gilbert Simondon, 1924-1989)은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조르주 칸길렘, 마르샤 갈레, 모리스 메를로-퐁티, 장 이폴리트에게서 수학했다. 1958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프와티에 문과대학 교수(1955- 1963)를 거쳐 소르본-파리 4대학 교수로서 교육과 학술활동에 전념하며 ‘일반심리학과 기술공학 실험실’을 직접 설립하여 이끌어 나갔다(1963-1983). 주요 저서로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주논문)와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부논문)가 있다. 그의 사후인 1990년대부터 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2000년대에는 『기술에서의 발명』, 『상상력과 발명』,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지각에 대한 강의』, 『동물과 인간에

에서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론적 본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시몽동 철학의 핵심은 ‘개체화’(Individuation)<sup>22)</sup>이다. 통상 개체는 분리할 수 없는 독립된 생물체를 말한다. 그러나 시몽동에게 그것은 생명적 개체(동물)일 수도, 기술적 개체(기계)일 수도, 심지어 심리적 개체(사유)일 수도 있다. 개체화란 이런 개체들이 발생하는 과정이다. 생명체와 다름없이 기계가 발명되는 과정도 개체화의 과정으로 본다.<sup>23)</sup> 따라서 그에게 기술은 ‘결여된 인간을 강화하는 단순 보철물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

대한 두 강좌』 등 그의 강의와 강연 원고들을 묶은 저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개체화를 주제로 삼은 발생적 존재론, 인식론, 자연철학, 그리고 이에 근거한 독창적인 기술철학은 질 들뢰즈의 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브라이언 마스미, 파올로 비르노,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와 같은 현대 정치철학자들과 베르나르 스티글러, 브뤼노 라투르와 같은 현대 기술철학자들에게도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하고 있다.

- 21) 질베르 시몽동의 기본 관점은 오랫동안 서구 사상에 뿌리내린 지배적 패러다임 정신과 물질의 철학적 이원론을 비판하며 반(反)실체론적이고 반(反)질료형상론적 사유를 지향한다. 현재 프랑스와 영미권 등의 국외에서는 시몽동 기술철학의 주요 개념들이 철학과 기술과학을 넘어 이미 미디어연구, 문화연구, 현대사회이론 등으로 그 영역을 점차 확장시켜가면서 주요한 참조가 되고 있다.
- 22) 질베르 시몽동(Gilbert Simondon)의 개체화는 형성의 한 과정으로서 결정체처럼 생명이 없는 자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명백히 식물이나 동물이 형태를 가지게 될 때 개체화가 발생하며, 뿐만 아니라 심리적 인간이나 사회 구조의 발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시몽동의 예시인 염화나트륨 결정체, 즉 소금을 보면 포화 용액에서 형태를 취한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비호환성과 함께 많은 긴장으로 불안정한 순간이 있다. 그런 다음, 예를 들어 가열할 경우, 용액은 결정화가 시작되는 임계치에 도달한다. 용액이 완전히 결정화될 때까지 결정이 발생하고 확산되는 데에서, 정보가 배포되는 데에서 우리는 재구조화(restructuration)를 보게 된다. 시몽동은 이러한 긴장, 임계치, 그리고 재구조화 모델이 살아있는 존재나 심리적·사회적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23) 사람들은 인간이 독립적으로 기계를 발명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체화는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다. 아직 개체화되지 않은 상태를 전(前)개체적인 실재(realite preindividuelle)라고 하는데, 그것은 잠재적(potential) 에너지로 가득해서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뭔가로 바뀔 가능성으로 가득한 곳이다. 시몽동은 그곳에 내적 문제가 있을 때, 개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解)로서 돌연변이처럼 발생한다고 말한다. 예컨대 라디오 램프에서 4극관은 3극관의 작동을 방해했던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크린 그리드’를 넣으면서 발생한다. 또 5극관은 2차 전자방출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4극관에 ‘억제그리드’를 넣으며 출현한다.

매체로서 인간사회의 새로운 구조화와 존재론적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24)</sup>

특별히 시몽동이 기술에 대한 이러한 독특한 시각을 전개했던 배경에는 생성철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물의 변치 않는 본질이나 사물의 생성하는 흐름이 아니라 존재를 구성하는 '불연속적' 구조를 강조하였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그에게 기술적 대상은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불변의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생하고 변화하는 어떤 것으로 존재론적 상호작용인 것이다.<sup>25)</sup> 특히 각 기술개체의 이질적 요소 사이에서 양쪽 어느 것으로도 환원 불가능한 새로운 형태가 창조되는 과정 자체를 기술적 활동으로 간주한다.<sup>26)</sup> 그러므로 기술적 대상은 그 안에 내재된 기술적 본성을 실현하고 양립불가능하고 이질적이고 불일치하는 것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통을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본성상 기술과 자연, 기술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소통시키고 관계 짓는 '탁월한 매개자'가 되는 것이다.<sup>27)</sup> 즉 기술대상을 이해할 때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창조 과정, 곧 역동적이고 발생적인 형태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적인 운동성의 포착이 핵심이다. 이렇게 시몽동은 너무나 간단하게 넘겨버린 수많은 기술 대상을 오로지 유용성만을 가지며 어떠한 의미작용을 가질 수 없는 물질의 집합으로 다루는 태도와 동시에 로봇과 같은 기술 대상들이 인간을 공격할 것이라는 위험을 드러내는 인간의 모순적 태도를 지적하였다.<sup>28)</sup> 이러한 인간의 태도는 기술적 대상들에 대한

24)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과주: 아카넷, 2017), 206.

25) Simondon, *Du Mode d'existence des Objets Techniques*, 김재희 역,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서울: 그린비, 2011), 23.

26)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167.

27) 위의 책, 236.

28) 김진택, 『테크네 상상력』, 218.

게으른 인식과 값싼 휴머니즘을 소비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몽동은 하이데거나 엘뤼(Jacques Ellul)과 같은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과 결정적으로 관점을 달리한다. 그에게 기술적 대상들이 가지는 상대적 자율성은 인간을 지배하고 위협한다기보다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을 소통시키고 관계 맺게 하는 변환적 매체<sup>29)</sup>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sup>30)</sup> 엘뤼 역시 기술의 자율적 발전을 문제 삼고 있지만 그것을 인간을 통제하고 전복시킬 위험을 보았던 것과 반대로 시몽동은 기술의 행위능력을 긍정적으로 탐색하면서 이전의 기술철학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sup>31)</sup> 시몽동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뛰어넘는 탁월한 기계들이 인간을 지배할지 모른다는 영화적 상상력과 기술발전에 의한 인간 소외의 문제들은 오히려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방식에 대해 잘못된 이해와 기술적 대상들과 인간의 부적합한 관계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기술개념을 전제로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일찍이 중요하게 보았던 시몽동은 기술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매개하는 진정한 소통의 역량이라고 역설한다. 특히 하이데거와의 본질적 차이는 인간을 본성상 다른 존재자들보다 특권화 시키고 기술을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환원시키는 인류학의 태도를 비판하며, 생태주의적 기술공포증이나 기술만능주의의 양극단을 벗어나 ‘기술과 인간의 양상발’을 강조하는 것이다.<sup>32)</sup> 시몽동을 한국인문학계에 소개해온 김재희는 시몽동은 “인간과 기술적 대상들 사이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 공진화의 적합한 관계 방식을 정립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평가한다.<sup>33)</sup>

29) 이때 매체는 단순한 매개물로 고정되지 않고 개체의 존재양식과 구조를 바꾼다.

30) 김진택, 『테크네 상상력』, 235.

31) 안미현, “하이데거의 기술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STS와 ANT의 관점에서”, 85-6.

32)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11.

즉 하이데거가 기술을 ‘세계 내 존재’라는 근원적 차원에서 존재론으로 이해했다면, 시몽동은 1950년대에 기술에 대한 근대의 오해를 해체하고 이미 기술의 핵심을 ‘관계론’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그의 관계론적 관점은 하이데거와 같은 과학기술의 본질에 대한 질문보다는 더 정치적이고 현실적으로 인간의 발명, 산업과 기술, 노동자 문제,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sup>34)</sup> 따라서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해 인간과 기술의 상호협력적 관계성을 주목하면서 시몽동은 인간과 기술 그리고 자연과 기술을 하나로 바라보게 하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의 고유한 존재 양식을 설명하였다. 즉, 시몽동은 기술적 대상들의 발생과 진화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연물의 발생 혹은 진화 방식과 동일하지 않지만 기술적 대상은 애초부터 자기 고유의 발생과 진화의 법칙을 갖는 독자적 존재성의 특징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sup>35)</sup>

이러한 관계적 관점에서 시몽동은 인간과 분리되어 작동하는 자동기계 장치를 상징하는 사이버네틱스를 비판한다. 오히려 시몽동은 “자동화로 인해 인간과 기계 사이에 포화되어 가는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두려움을 바로잡고 인간 중심적인 노동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sup>36)</sup> 따라서 “인간은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축소될 수 없는 ‘기술적 활동’을 해야 한다. 즉 그가 이질적 요소들 사이의 관계론을 주목하는 이유는 각 개체가 애초부터 일정한 자기동일성을 가지지 않으며, 개체들이 모여 일어나는 집단적 개체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sup>37)</sup>

33) 위의 책, 11.

34) 황수영,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 (서울, 그린비, 2017), 28.

35)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14.

36) 위의 책, 235.

37) 안미현, “하이데거의 기술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STS와 ANT의 관점에서”, 86

결론적으로 인간과 기술 발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몽동의 작업은 인간의 발명에 의한 기술적 대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기술은 그 자체로 존재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적 필연성의 전개를 추적하여 인간과 기술의 근본적 관계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이렇게 관계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소셜네트워크와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인간 각각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항시적으로 접속해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 기술적 대상 없이는 일상의 삶이 가능하지 않은 기술 의존의 시대에, ‘기술의 존재가치’와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던져 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기술에 대한 진지한 성찰뿐 아니라 인간의 책임을 불러일으킨다.

갈릴레오의 망원경은 그저 밤하늘을 바라보는 기구가 아니라 근대 이후 인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과학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현미경 또한 과학자들과 조화로운 앙상블을 이루어 세포와 스펙트럼선의 기능을 발견하며 근대 과학지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러한 관점은 과학자들과 기술개체들과 과학지식은 존재론적 관계 속에서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상호적으로 사유하게 하며 동시에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기술적 기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간의 발명과 기술 본성이 결합된 결과이기에 인간의 역할을 이러한 얽힘의 과정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과 인간의 관계성에 집중하는 관점은 근대 기술에 대한 통제와 지배의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서 현대사회 첨단기술의 역량과 더불어 인간과 기계의 조화와 인간과 비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데 유익하다.

더욱이 시몽동의 기술과 인간을 협력적 앙상블로 바라보는 관점은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웨어러블(wearable) 컴퓨터가 발명되는 과학기술의 시대의 기술본성은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기술개체는 나름의 행위능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존재로 사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시몽동은 자연물과 인공물의 존재 방식을 관계론적으로 바라보면서 인간과 비인간 즉 물질과 기술 대상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정립하였다. 기술적 대상의 존재와 발생에 대한 시몽동의 독특한 관점에서 출발하면 이 지구의 역사는 그리고 인간의 삶은 기술과 생명 사이에 존재하는 심층적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기술 대상들의 존재양식은 마치 유기체와 동일한 것, 혹은 유익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것으로 바라보며 각기 다른 뿌리와 그에 상응하는 사유를 발전시키는 것은 인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 본성을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발생적 기술적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가운데 기술적 대상들을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세계를 형성해가는 인간의 고유한 역할을 신학적으로 해명하고 신과 세계의 그리고 인간과 세계 사이의 소통의 매개자로서의 기술대상을 바라보면서 기술시대에 기독교 진리 전파의 중요한 매개자로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유하게 된다. 이렇게 기술의 발생적 관점은 기술의 기능과 의미작동 방식을 사물과 물질 그리고 물질화(materialization)의 복잡한 얽힘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을 신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말씀과 인간과 기술과 세계를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 관계 속에서 보게 된다.<sup>38)</sup> 포스트휴먼 담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인 켈러는 ‘얽힘’(entanglement)<sup>39)</sup>이라는 은유를 사용하는데

38) 벽돌이 만들어지는 기술 과정에서 우리는 흙이라는 물질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천문학이라는 과학은 망원경과 같은 기술 대상의 발전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 수많은 기술대상들을 제외한 채, 마치 인간의 정신작용이 기술 활동과 물질환경과 상관이 없는 독자적인 것으로 잘못 사유하는 경향을 보인다.

39) 얽힘의 개념은 양자역학에서 빌려온 용어로서, 공간과 시간의 모든 간격을 넘어 전자가 동시에 얽혀있다(simultaneous entanglement)는 개념을 가리킨다.

그것은 현대물리학이 강력하게 입증하는 양자의 얽힘의 현상을 통해서 비이성적이고 인과 관계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차원으로 상호 얽힘의 관계를 설명한다.<sup>40)</sup> 지금껏 물질성과 육체성과 같은 개념들은 신앙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이원론적 신학전통에 익숙한 한국교회가 물질과 사물에 대한 적극적 사유가 낯설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생적, 관계적 관점은 신학적 사유와 실천 역시 물질화의 과정에서 분리되어있지 않음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영혼구원과 타락한 세계라는 이원론적인 분리를 넘어 일상성과 세계가 하나님의 내재하심으로 얽히어 가는 희망의 과정임을 인식하게 된다. 기술에 대한 발생적 관점은 오히려 생명체와 기계를 동일시하거나 인간을 배제하는 기계의 위협을 극복할 뿐 아니라 인간의 발명과 조직화 작업은 기술적 대상들의 고유의 발전과 ‘공-진화’하며, 인간과 기계가 상호협력적으로 만나는 ‘인간-기계’의 양상분이 구현하게 한다.

이렇게 디지털정보기술 시대에 기술개체의 적극적 행위성을 심도 있게 평가하는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중심의 구원론의 교리적 한계와 정신과 영혼보다 열등하게 평가해 온 물질환경과 더 나아가 도구화해온 기술 대상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토대로 좀 더 인간과 기술과 자연에 대한 조화로운 신학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창조와 구원의 서사 속에서 인간과 기술의 상호협력적 관점은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으로 인간과 기술의 분리를 정당화해온 인간중심주의적 역사를 반성하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신학적 전통을 복원하며 기술 대상은 더 이상 인간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독점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과 물질 환경,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40) Catherine Keller, *Cloud of the Impossibl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그녀는 이러한 ‘얽힘’이라는 은유를 통하여 모든 이론의 폐쇄적 자기 안정성을 위한 예외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세세한 명령은 인간의 발명적 특성을 통하여 기술적이고 동시에 미학적이며 종교적 응답으로 표현된다. 더 나아가 거룩한 성막은 인간공동체와 기술대상들의 결합체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거룩한 공적인 장소로 거듭난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의 십자기는 인간 구원의 도구이거나 대상화된 사물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의 결합체로서 신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매개자이며 신앙적 의미를 형성하는 변환적 매체로서의 기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는 그 각각의 기술적 개체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과 결합하는 관계적 실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의 역사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그 언어가 지시하는 창조된 세계와 물리적 환경과 만물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기술은 단순히 문화적 변화뿐 아니라 문명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이 문명사적 전환은 다양한 개념을 통해 도전하는데 지적인 도전과 함께 도덕적인 그리고 종교적 전제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특별히 시몽동의 기술이해는 기술적인 것, 예술적인 것,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대립적이기보다는 각각의 영역이 다 불완전하지만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관계를 훨씬 폭넓고 유연하게 이해하도록 한다.<sup>41)</sup> 특별히 기술과 인간이 함께하는 세계에서 인간의 고유한 역할은 열린 기계들의 협력과 총체적 조화를 실현하는 상설조직자로, 그리고 기계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살아있는 통역자로 그 고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sup>42)</sup> 인간과

41) 김재희, Simondon,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328.

42) Simondon, *L'Individuation A La Lumiere Des Notions De Forme Et D'Information*, 김재희 역,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서울: 그린비, 2011), 214.

기술의 존재론적인 관계와 인간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인간이 자신을 강화시키거나 확장하려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특권화를 내려놓고 다양한 타자를 향하여 개방한다는 점에서 기술신학의 정초를 위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인간과 기술개체와의 관계성의 변화로 제기되는 핵심 논점은 더 이상 고전적 휴머니즘의 패러다임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든 첨단기술은 기술적 전환의 과정에서 기술은 그저 인간에 위협만이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휴머니즘에 대한 기회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 IV. 기술신학의 토대로서 만물 신학과

기술신학(techno-theology)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할 때 신학과 시몽동의 기술철학의 대화는 유기체와 비유기체 그리고 인공물과 자연물 사이에서 분리적 이원론을 극복하고 관계 안에서 구체화하는 기술개체의 존재양식과 기술개체들과 인간이 맺는 상호협력적 관계를 신학적으로 정립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신학의 토대를 위한 기초연구는 하나님 구원과 창조의 서사 안에서 인간을 위한 유용성만을 강조하는 기술이해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인간과 기술의 협력적 공진화의 과정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필자는 역사적으로 살펴본 기술개념이 그 시대의 사회문화 속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이제 기술이 인간성과 사회 전반의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첨단기술 시대의 기술 신학의 정립은 비록 기초적 단계이지만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끄심의 방향이 있기에 이 기술 전환의 시대에 또 하나의 세계인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한가운데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

다. 기술은 인류가 처한 위기 때마다 헤쳐 나아가는 길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였으며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서사에 늘 협력해왔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인간에게 경작을 명령하셨을 때 인간이 그저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인간의 창조성과 발명과 연합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환경과 만물과 상호작용하며 나무나 돌을 사용한 다양한 기술 대상들을 통하여 세계를 일구어 왔을 거라는 상상이 어렵지 않다.

필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대 신학에 영향을 준 기술 부정 혹은 기술 비판적 관점으로는 인간 존재의 기반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된 현대 디지털 시대의 기술 본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에 대안적 담론을 펼쳐갈 기술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인간중심의 세계관 안에서 인간과 기계, 자연과 사물, 유기체와 비유기체 사이의 엄격한 개념적 분리를 전제하는 근대 이원적 개념들의 비판하고 문명전환을 추동하는 기술 발전의 변화에 실천적으로 응답하기 위하여 기술에 대한 새로운 존재론적, 긍정적, 관계적 접근 방법으로 기술성의 본질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관계를 설명하였다.<sup>43)</sup> 즉 이러한 존재론과 인식론의 결합을 통하여 인간사회는 인간만의 일방적 진화가 아니라 인간 개체 자체가 만물의 얽힘의 과정 안에서 이미 집단적 개체라는 전제와 인간의 창조성과 생산성과 같은 기술본성과 기계의 상호작용적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함께 세계를 형성하여 온 것임을 알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적 관점은 물질환경과 기술대상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의미를 획득해 나아가며 도구적 작동을 넘어 정신작용의 중요한 과정임을 알게 한다. 우리는 중세의 세계관을

43)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64.

전복시킨 종교개혁의 정신이 단지 인간만으로 수행된 것이라기보다 기술 개체들, 즉 인쇄술, 종이기술, 그리고 잉크기술의 발전과 앙상블을 이루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인쇄술과 종이 기술은 각각의 발전과정에서 나무와 석탄과<sup>44)</sup> 같은 물질환경 안에서 발전된 것이다.<sup>45)</sup> 이렇게 새롭게 발명된 기술적 존재는 인간과 자연 사이를 매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면서 익숙한 관계 방식을 해체하고 때로는 새로운 의미가치체계와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제 기술적 대상들 역시 그 자체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고유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발전되어가면서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개입하고 인간과 기술은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하여 상호 협력해온 관계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에 대한 과정적 이해는 인간이 기술을 다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태도에 대한 성찰과 기술대상의 존재양식의 고유한 과정을 보게 하는 중요한 시각을 동시에 제공한다.<sup>46)</sup> 이러한 기술적 존재양식은 기술 대상의 발생이나 진화를 인간의 유용성 때문만이 아니라 시스템

44) 시몽동은 기술적 개체화의 전개체적 퍼텐셜이 바로 자연이라고 설명한다. 황수영, “시몽동의 기술철학에서 규범성의 문제: 생명적 규범성과 사회적 규범성 사이에서”, 『근대철학』 제18집(2021.10), 86.

45)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114. 시몽동은 기술적 개체는 자연과 기술적 대상 사이의 매개항으로 연합환경이 존재하며 이러한 연합환경은 기술적이며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46) 이미 인공지능(AI)기술은 지능뿐 아니라 문학과 예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인공지능(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발명품(제품)에 대해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한국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I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지난 9월 28일 ‘무효처분’을 내렸다. 한국의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명은 본디 인간의 창조적 역량으로 기계와 다른 본질적 특성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봇과 AI 첨단기술의 발전은 기술의 고전적 인간 이해의 경계를 해체시키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성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장애들을 해결하려는 기술 내적 필연성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기술본성의 발생적 생성을 추적해가면 인간의 지배적인 기술이해를 넘어 인간과 기계의 존재론적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과 인간의 관계적 이해는 인간이 기술을 만드는 주체이지만 기술이 일방적인 객체가 아니며 기술대상의 역사성과 그 자체의 추동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과 인간의 상호관계 안에서 기술 활동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의 새로운 이해는 기술이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형성하고 인간의 지향과 관계성에서 상호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숙고하게 만들고 인간이 일방적으로 통제하거나 기술이 일방적으로 위협하는 왜곡된 전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통제와 지배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도록 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개념의 존재론적 관계성과 발생학적 관점은 만물에 대한 성서적 해석을 통해서 온 세상의 화해를 추구하는 만물신학(theology of all things)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창조주이심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단지 추상적 차원이 아니라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환경과 그 대지 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과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소통적 매개인 기술적 대상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란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우주’(universe)라고 말하고 있는 ‘타 판타’(τὰ πάντα)를 번역한 것이다.<sup>47)</sup>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인간뿐 아니라 비이성적이 피조물, 물질적인 피조물, 생물, 무생물, 유기체, 무기체, 사물들(things)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인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되지 않았던 만물(all things)<sup>48)</sup>에 대한 성경적<sup>49)</sup> 해석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과

47) Peter T.O'Brien, *Word Biblical Commentary V.44 Colossians, Philemon*, 정일오 역, 『골로새서, 빌레몬서-WBC 성경 주석 44』 (서울: 솔로몬), 124.

48) 만물은 영어 성경에서 all things로 번역된다.

정에 인간뿐 아니라 땅의 모든 것들(all things)을 포괄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실현해 나아가는 데 필수적임을 말한다.

이러한 만물에 대한 신학적 관점은 기술적 대상을 가능하게 한 물질적 개체나 생명체 그리고 인간의 집단적 사회가 탈물질화와 탈육체화로 분리되는 것을 재관계화하여 세계를 생명-물질-사물(life-matter-thing)과의 얽힘의 과정 안에서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신물질주의자의 대표적 학자인 캐렌 바라드(Karen Barad)는 존재를 개체(individual)가 아니라 집단적 ‘얽힘’(entanglement)으로 본다. 바라드는 그래서 개체가 각각의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이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얽힘으로부터 주체와 객체가 구별되어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내적-작용’(intra-action)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얽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기 때문이다.<sup>50)</sup>

이러한 각 개체의 집단적 공존 안에서 기술성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소통의 역량으로 전환됨은 마치 예수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도 빵과 포도주와 같은 물질적 개체뿐 아니라 책상의 자 그릇들과 같은 다양한 기술개체들을 통해서 예수와 제자들은 소통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획득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의미화의 과정은 인간의 정신작용이 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곧 물질-기술-사물의 네트워크와 집단체로서 기술적 개체들(만물)과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획득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성경의 다양한 문맥 가운데 피조세계를 통한 신적 계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49) <sup>15</sup>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sup>16</sup>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sup>17</sup>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5-17).

50) Karen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7).

이렇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상은 시편이나 욥기나 선지서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sup>51)</sup> 이러한 만물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기술적 존재와 발생에서 출발하는 시몽동의 독특한 관점과 대화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연물과 인공물 사이의 존재하는 심층적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포괄적 과정적 관계적 신학적 관점은 인간과 물질뿐 아니라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상호협력적 관계로 이해하도록 한다.<sup>52)</sup> 이러한 만물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존재하는 모든 개체는 이미 집단적 개체이며 항상 공존을 전제하기에 이 세계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만물의 관계적 공존으로 바라보도록 한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체임을 말하고 17절은<sup>53)</sup> 더 나아가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완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더불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매개자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바울은 만물이라는 철학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만물의 원리이며 모든 창조물의 유지자이심을 말한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가 피조된 세계의 외적 질서의 중심이 됨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한 개체 한 개체가 '본래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선재성이 만물에 미치는 결과는 만물이 그분께 속해있음을 말한다.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라면 사도 바울(고전8:6)과

51) 욥기 36:24-37:24; 38:1-41:34; 8:1-22, 시편 89:5-13; 97:1-6; 104: 1-32; 145:5-16에 나타난다.

52) 앞으로의 기술 시대에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 인간을 '인간-비인간의 연결로 이어지는 인간과 기술의 조화'라고 보는 라투르의 견해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53)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7).

에베소 서신과 골로새 서신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의 화해(골 1:20)를 발견하고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대가를 치르신 귀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였다.<sup>54)</sup> 이러한 현대신학의 도전은 근대의 신학이 구원을 인간구원과 영혼구원으로 축소시킴으로 이 세계의 다른 모든 피조물을 구원이 없는 상태로 배제했으며 이러한 신학적 전통은 우주적 그리스도가 실존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하나의 신화로 여겨질 수밖에 없음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sup>55)</sup>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그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계신다.

더군다나 지구 위의 모든 만물은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인간 인식의 가능성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사랑의 매체가 된다. 인간이 지각할 수 없는 거대한 기후 체계나 인간이 다 파악하지 못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복잡성 역시 인간이 통제할 수 없지만<sup>56)</sup> 실재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디지털 세계 역시 하나님 사랑의 네트워크로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궁극적인 화해의 대상을 ‘만물’이라고 규정한다.<sup>57)</sup> 이렇게 성경의 구원사에서 인간은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그 역사는 항상 인간과 자연과 사물

54) Moltmann, Jürgen. *Ethik der Hoffnung*, 광혜원 역, 『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253.

55) 이러한 탈세계적 구원론은 여전히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전히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기후 위기의 문제를 인식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나 여전히 신앙의 문제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56) 2022년 10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이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불통 사태가 일어나 거의 모든 서비스가 멈추면서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

57) 골로새서 1장 16절 “하늘과 땅에서 ……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와 골로새서 1장 20절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에서 두드러진다.

의 네트워크로 인간과 비인간은 즉 방주와 바다, 성막과 광야, 석청과 광야, 그리고 지팡이와 홍해 등 구원의 서사를 형성해가는 다양한 협력적 존재들이다.

기술 신학의 토대로서 만물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기독교가 인간중심이 아니며 인간만이 세계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아님을 깨닫게 하며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주체됨을 말한다.<sup>58)</sup> 즉 피조세계와 만물은 단순히 인간만을 위한 활동 공간이나 소유 그리고 활용과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성과 발명 그리고 기술적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적 계시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 신학은 이제 ‘유기체와 생명체’를 넘어 비 유기체적 존재들과 만물의 얽힘 속에서 공생하며 공동참여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 만물 신학(theology of things)적 바탕 위에 기술 대상들의 고유한 존재론적 가치가 드러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의 피조물과 사물 그리고 기술적 대상을 고유한 존재로 유지하게 하시는 분으로 만물 신학은 그리스도가 하나의 지구와 동시에 디지털 세계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이 지구공동체의 일원이 되신 성육신의 신비를 다시 되새기며 만물과 공생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 자연에서 분리되거나 기술과의 협력을 제외한 채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기술에 대한 이러한 존재론적인 상호관련성과 각각 개체들의 본래적 가치는 현대 기술개발로 인해 또 하나의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역시도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네트워크로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기술대상의 존재론적 관계성과 집단적 개체성을 설

58) 시편 119:89-91은 인간을 넘어 만물이 주의 종이 됨을 증거하고 있다. <sup>89</sup>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sup>90</sup>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sup>91</sup>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명하며 필자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인간의 고유한 역할이다. 인간 중심적이고 도구주의적인 기술개념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대상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중재와 협력을 통해서만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시몽동은 자신의 기술철학과 당대의 사이버네틱스 간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사이버네틱스가 기술적 대상들을 생명체와의 유비 가운데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자체로 곧 생명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59)</sup> 그래서 시몽동은 기술적 존재 안에 인간적 본성이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sup>60)</sup> 성육신 신학적 관점 역시 신체적 인간과 만물과의 분리를 거부하고 관계성 안에서 상호협력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집단적 네트워크로서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가장 중요한 인간의 책임도 기술개체와 인간과 함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술적 본질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즉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기구나 기술개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인간의 창조성, 생산성 그리고 발명과 같은 기술 본성이 결합된 결과다. 즉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체로서 개입하는 인간을 필요하고 인간과 기계로 구성된 실재인 이 복잡한 기술적 개체의 핵심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인간이며 기계와 연장들의 관계 안에서 연합환경의 핵심에 있는 것도 여전히 인간이다.

골로새서에서 언급되는 모든 만물(all things)과 그리스도의 화해를 인간과 기술의 관계적 존재론의 토대로 바라본다면 중재자 혹은 조정자로서 인간이 기술개체, 자연,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만물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흔적’(vestigia Dei)만 담고 있는 데 반해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나타내는 중재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단지 자연의

59) 김재희, Simondon,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71-3.

60) 황수영, “시몽동의 기술철학에서 규범성의 문제: 생명적 규범성과 사회적 규범성 사이에서”, 86.

일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존재인 것이다.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이러한 인간의 특별한 존재 규정은 오직 창조 공동체 안에서만 유효하며 인간은 단지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격이다.<sup>61)</sup> 즉 온 세계를 하나님의 만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만물에 초월적 내면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만물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만물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비인간의 관계맺음을 통해서 신적인 목적을 실현해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 V. 나가는 말

종교는 그 어떠한 시기에도 과학기술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킨 적은 없다. 왜냐하면 긴 역사를 지나면서 변치 않은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고 소통하기 위한 매체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왔기 때문이다. 현대의 네트워크적 기술이야말로 분리된 개인들을 묶고 소통시키는 진정한 매개자로서 때로는 사회의 발전적 출구를 마련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 조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이 사회문화변화의 중심축이 되어가는 시대에 기술신학의 정립을 위한 기술철학과의 대화는 기독교 진리를 사회 안에서 소통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첫째 기술개념의 변화이다. 현대사회의 인간은 매 순간을 기술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 우리가 도구적 기술개념의 비판을 수용하고 기술대상을 기술과 인간, 사회와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체로 바라볼 때 첨단 기술시대의 신앙공동체의 의미 형성과정과 가치 생산구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디지털 기술시대에 현대인은 생활의 매 순간순간을 찾고 보고 대화하고 듣고 만들고 중계하고 구매하면서 만

61) 광혜원, Moltmann, Jürgen, 『희망의 윤리』, 247.

들어가는 그 연결은 끊어 없다. 이 디지털 매체가 만들어가는 연결의 기록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 순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유기체처럼 우리들의 생활공간을 만들어가며 인간중심적인 기술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둘째 기술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성찰이다. 현대 기술사회는 기술의 인간화와 인간의 기술화가 공존하여 때로는 복잡한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복잡함은 어떤 것이 우선적인 가치인지 분별이 어려울 때가 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술 대상들과 인간의 존재론적인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전통적인 수동과 능동의 관계를 극복하게 하고 각각의 존재 자체가 세계 속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시몽동의 고유한 기술적 존재양식의 인식은 타락한 세상이라는 과도한 구원론적인 개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 속에 만물을 경외와 감탄으로 바라보게 하는 성경적 관점과 연동되어 첨단기술의 시대에도 신학적 상상력을 통해 활동하는 비인간 객체들을 인간과 더불어 온 세계를 향한 창조와 구원의 서사를 이루는 매개자로 관계 맺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는 만물의 화해와 인간과 비인간의 역동적 협력관계 속에서 고유한 각각의 존재방식을 토대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만물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기술과의 상호관계적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공적 영역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신학을 반성하며 적극적이고 문화 변혁적 기술 신학을 구성할 수 있는 성경적 토대이다. 기술 신학적 구성으로서의 만물 신학은 만물에 깃든 그리스도의 의도를 성찰하고 매개자로서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만물에 내재와 초월의 관계성 안에서 드러남을 인식하게 한다. 이때 세계의 유지자이신 그리스도와 만물과 인간과 존재론적인 관계성을 신학화함으로 인간과 기술의 공존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고유한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중

요한 이유는 만물신학은 인간의 한계와 동시에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글에서 기술이 가져오는 부정적 현상 분석에 내용을 할애하지 않은 이유는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가 아니라 최근 기술관련 신학적 담론이 인간소외와 인간에 위협적인 기술 혹은 인간의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중립적 기술에 대한 내용이 다수 있기에 본 글은 그러한 인식의 전제가 된 기술개념의 비판적 숙고와 기술과 인간의 존재론적인 관계성에 대한 기술 신학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술과 인간과 세계와 하나님의 바람직한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윤리적 책임과 가치들을 바르게 설정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기술과 신학의 대화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다양한 공적인 영역에서 기술이 가져올 엄청난 긍정적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의 더 좋은 세계를 그려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간과 기술의 상호협력적 관점은 기독교가 기술은 그 자체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창조성과 발명과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음을 인식하도록 하며 제아무리 빠르게 변화되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기술이 지구와 인류를 위해 바른 방향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신학이 적극적 공론의 장에 참여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파주: 아카넷, 2017.
- \_\_\_\_\_.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 (2014).
- 김진택. 『테크네 상상력』. 서울: 바른북스, 2021.
- 안미현. “하이데거의 기술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STS와 ANT의 관점에서.” 『독일언어문학』. (2020)
- 황수영. “시몽동의 기술철학에서 규범성의 문제: 생명적 규범성과 사회적 규범성 사이에서.” 『근대철학』. (2021.10).
- Catherine Keller. *Cloud of the Impossibl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 Karen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Duke University Press, 2007.
- Martin Heidegger. *Vorträge und Aufsätze*. 이기상 외 역. 『강연과 논문』. 서울: 이학사, 2008.
- Moltmann, Jürgen. *Ethik der Hoffnung*. 광혜원 역. 『희망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Peter T. O'Brien. *Word Biblical Commentary V.44 Colossians, Philemon*. 정일오 역. 『골로새서, 빌레몬서-WBC 성경 주석 44』. 서울: 솔로몬, 2008.
- Simondon, Gilbert. *Du Mode d'existence des Objets Techniques*. 김재희 역.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서울: 그린비, 2011.
- \_\_\_\_\_. *L'Individuation A La Lumiere Des Notions De Forme Et D'Information*. 김재희 역.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서울: 그린비, 2011.
- 최승현, “5개 국어로 축복해주는 ‘로봇 목사’ 등장-기계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의 목적”, 뉴스앤조이, 2017년 5월 31일.

논문투고일: 2023년 06월 14일

심사개시일: 202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13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첨단기술 시대에 호모 파베르로서의 인간과 기술개념을 성찰하며 변화된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응답이다. 인간 중심적 기술관을 넘어 인간과 기술 사이의 존재론적 관계를 신학적으로 숙고하고 기술에 대한 발생적 관점으로 근대 기술 이해를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의 존재론적 본성과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발생적 생성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기술 철학자 질베르 시몽동(Gilbert Simondon)과 만물 신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계들과 공존하는 인간의 삶을 긍정하며, 기술적 존재자들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기초로 현대 기술사회에서 인간과 기술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신학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신학적 성찰의 과정을 통하여 기술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의 사명을 재정립하고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다시 동력을 회복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기술개념, 기술의 존재 양식, 인간과 기술의 관계, 질베르 시몽동, 만물신학